

[ETF/파생 전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영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의 영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말 상장 예정. 홍콩 상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P 규모(44억 달러), 국내 레버리지 ETP 교육 수강자 수 급증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도는 확인

상장 직후 단기 쏠림 유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현물(100%)+선물(50~100%) 구성 가능성 높으며, 상장 초기 자금이 첫 5거래일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 이후 5거래일 동안 단기 변동성 급증 가능성에 유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요 추정

미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P 사례 적용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유입은 소극적 유입 기준 1.7조원, 적극적 유입 기준 5.3조원으로 추정. 이전 수요(보통주, 기존 반도체 ETF, 홍콩 ETP)가 총액의 85~88%를 차지하며, 신규 수요는 12~15% 수준.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직접 매매(IBKR) 개시는 변수 요인. 단일 종목 교육 이수가 별도로 필요한 점도 일정 부분 hurdles 작용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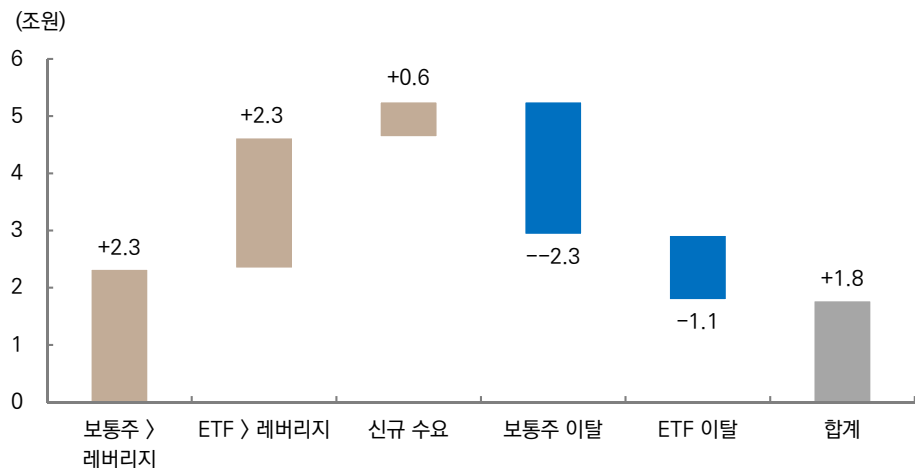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영향

보통주 매도 요인(소극적 -1.1조 원, 적극적 -3.4조 원)과 신규 ETF의 현물 매수(소극적 +1.7조 원, 적극적 +5.3조 원)가 맞물려 순영향은 우호적(소극적 +0.6조 원, 적극적 +1.8조 원). 다만 기타 주체(외국인 등)의 활동 및 시가총액 규모를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적. 선물 시장에서는 기존 레버리지 ETF에서의 적극적인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자금 유입이 대부분 반영되며 프로그램 매수 및 쏠림 유발 가능성 높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반도체 종목’ 수급 영향

기존 신규 ETF 상장 시 유사 ETF에서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기존 반도체 ETF에서는 자금 이탈 발생 가능성 있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반도체 종목에는 ETF에 의한 수급 이탈 가능성 존재

레버리지 상장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통주에 대한 영향 분해(현물, 적극적 유입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영향 점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말 상장 예정이다. 현재 8개 운용사에서 상품 준비가 진행 중이며, 총 16개 ETF가 상장될 전망이다. 이중 인버스 상품도 2개 포함된다.

관심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2025년 5월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 레버리지(07747, 09747 HK)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07709 HK)의 순자산총액은 44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인 투자자 보유 금액은 1억 9,288만 달러(원화 2,797억원)이다. 올해 2월까지 국내 레버리지 ETP 교육 수강자 수는 30만명으로 2025년 전체 수강자 수(20만 5천명)를 이미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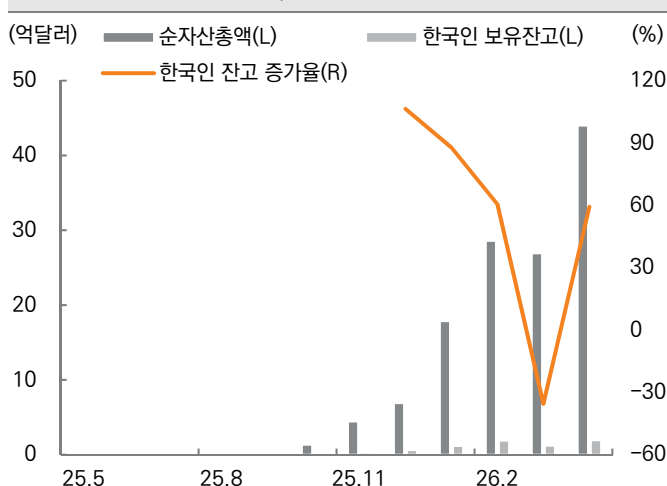
국내 ETF 시장 규모와 개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을 감안하면 레버리지 14종 ETF에 유입될 자금은 소극적 추산 시 1.7조원, 적극적 추산 시 5.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1.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일지

일자	진행 과정	주요 내용	비고
2026.1.30	도입 추진 공식화 및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국내외 ETF 시장 간 규제 비대칭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삼성전자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허용 방침 포함	금융위
2026.2.11~12	세부 방안 논의 및 종목 검토	운용사별 '1사 1상품' 원칙 적용 검토 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우량주가 유력 기초자산으로 거론. 금융위는 2/12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힘	언론/금융위
2026.4.21	국무회의 의결 (제도 확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x2) 및 커버드콜 ETF 상장이 법적으로 허용	정부 공식
2026.4.22	상장 일정 및 기준 발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5월 22일 이후 상장 예정 발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한 우량주 선정 기준 제시 -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현행 30% → 100%로 확대(승 제252조 개정), 10개 이상 종목 구성 등 기존 ETF 분산투자요건 적용배제(規 제7-26조 개정) -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승 제80조 개정)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종목) 시총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 → '26.1분기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종목	금융위/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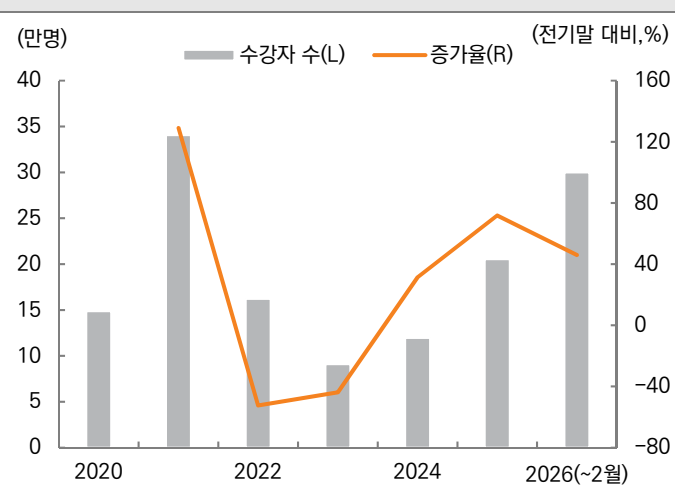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언론 취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홍콩 상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자산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국내 레버리지 ETP 교육 수강자 수



자료: 언론보도 취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요 추정

신규 수요(ETF 외부 자금)는 미국 상장 단일종목 ETP의 보통주 시가총액 대비 유입 규모로 산출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로 유입될 자금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가정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통주 투자자의 ETF로의 이전, 두 번째는 기존 유사 상품(반도체 ETF) 투자자의 이전이다. 세 번째는 신규 수요로, 총액 대비 1, 2 경로의 잔차로 계산했다. 상장 전 사전 설정된 물량으로 일정 부분 소화 가능하나, 기존 신규 상장 ETF의 설정 규모 추이를 감안할 때 설정 규모 총액은 7천억 원 선으로 추정한다.

표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자금 유입 추정

구분	항목	총액 (억원)	적용 비율(%)		적용 금액(억원)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총 수요 추정	삼성전자 시가총액	13,592,598	0.07	0.22	9,515	29,904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0,312,803	0.07	0.22	7,219	22,688
	합계	-	-	-	16,734	52,592
자금 효과 추정	[기존 주주 이전] 삼성전자 개인 이탈	1,996,093	0.3	0.8	5,988	15,969
	[기존 주주 이전] SK하이닉스 개인 이탈	921,346	0.3	0.8	2,764	7,371
	[기존 ETF] 한국 상장 반도체 ETF 이탈	344,066	1.3	6.3	4,604	21,585
	[기존 ETF] 홍콩 상장 레버리지 이탈	2,797	30.0	50.0	839	1,398
	신규 수요	-	-	-	2,539	6,269

주: 총 수요 추정은 각 종목 시가총액에 미국 레버리지 ETP 자금 동향 반영(엔비디아 0.05%, 테슬라 0.22%), 자금 효과 추정은 본문 참조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아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 반도체 산업 ETF의 규모는 31조 원으로, 집중 투자형 ETF 비중이 다른 산업 대비 높고, 레버리지 ETF 비중도 평균 수준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 특성상 ETF 수요자 입장에서 익숙도가 높은 점도 함께 감안하면 신규 ETF에 대한 거부감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한국 상장 주식형 ETF 유형별 규모 (2026.4.29 기준)

	집중 투자형 (억원)	정방향 (억원)	배당 (억원)	커버드콜 (억원)	레버리지 (억원)	전체 (억원)	집중투자형 비중(%)	레버리지 비중(%)
대형주	24,696	638,260	85,138	80,686	83,956	912,736	2.7	9.2
중소형주	0	112,202	242	0	49,088	161,531	0.0	30.4
섹터/산업	211,116	234,861	17,514	9,780	42,489	515,761	40.9	8.2
└ 섹터/산업(반도체)	146,305	126,307	0	2,316	35,998	310,925	47.1	11.6
└ 산업/방위	5,845	19,235	0	0	1,195	26,275	22.2	4.5
└ 산업/조선해운	33,770	2,676	0	0	2,598	39,044	86.5	6.7
└ 섹터/에너지화학	0	810	0	0	90	901	0.0	10.0
└ 섹터/정보기술	0	16,528	0	0	2,608	19,136	0.0	13.6
└ 기타(레버리지가 없는 섹터/산업)	25,196	69,305	17,514	7,465	0	119,480	21.1	0.0
스타일/전략	1,607	93,098	2,359	994	0	98,057	1.6	0.0
테마	29,425	214,927	0	0	13,442	257,794	11.4	5.2
└ 테마	11,727	112,884	0	0	21	124,632	9.4	0.0
└ 테마/ESG(2차전지)	17,698	102,043	0	0	13,421	133,162	13.3	10.1

주: 집중투자형은 ETF명에 'TOP'이 포함된 ETF로 섹터/산업, 테마 내 편입 종목을 압축적으로 운용하는 ETF,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변수는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접근성 개선이다. 최근 IBKR(Interactive Brokers)을 통해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직접 매매가 가능해진 점은 새로운 수급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수요 강도는 가시성이 낮아, 추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총 수요 추정: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P 케이스 감안 시 1.7조~5.3조 원 추정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P 케이스 감안 시 총 수요는 소극적 유입 시 1.7조 원, 적극적 유입 시 5조 3천억 원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기준으로 2022년 미국에 상장된 9개 개별 종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1년 누적 유입 규모를 활용했다(표 4).

표 4. 미국 개별종목 레버리지 ETP의 상장 시점 기초자산 시가총액, 레버리지/인버스 자금 유입

기초자산	시가총액 (억달러)	레버리지 자금 유입(억달러)	종목 수	인버스 자금 유입(억 달러)	종목 수	레버리지 자금 유입 강도(%)
테슬라(TSLA)	7,847	17.4	3	2.3	2	0.22
엔비디아(NVDA)	4,446	2.1	1	-	0	0.05
애플(AAPL)	26,504	0.4	2	0.4	1	0.00
마이크로소프트(MSFT)	19,248	0.3	1	0.1	1	0.00
아마존(AMZN)	13,191	0.3	1	0.0	1	0.00
알파벳(GOOG)	14,345	0.2	1	0.0	1	0.00
알리바바(BABA)	2,420	0.1	1	-	0	0.00
코인베이스(COIN)	197	0.1	1	-	0	0.04
메타(META)	3,186	0.1	1	-	0	0.00

주: 자금 유입은 상장 이후 1년 합산, 레버리지 자금 유입 강도는 시가총액 대비 레버리지 자금 유입 정도,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산업/테마의 유사도를 감안한 핵심 비교군은 엔비디아(NVDA US)로, 시가총액 대비 레버리지 ETP로의 자금 유입 강도는 0.05% 수준이다. 기존 보통주 투자자의 이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개별종목 마진/옵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한국에서 나타나는 보통주 이탈 대비 정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에서의 이전 수요는 20%로 가정한다.

한편 한국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 성향은 또 다른 변수이다. 순자산총액 기준 한국 상장 한국 주식형 레버리지 ETF가 전체 한국 주식형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미국 상장 미국 레버리지 ETF의 비중(1.6%)보다 월등히 높다. 다만 해당 수치는 주가 변동까지 반영된 순자산총액 기준임을 감안하면 최종 유입 정도는 0.07%~0.22% 선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현재 2개 종목 시가총액 반영 시 1.7조 원~5.3조 원 수준이다.

기존 보통주 수요 이전: 개별주→ETF 전환, 적극적인 신규 상장 ETF 참여 반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통주 투자자로부터의 전환 수요는 1) ETF 신규 상장 시 보통주 투자자의 전환, 2)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신규 상장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 유입 패턴을 감안하여 추정했다. 두 패턴을 감안하여 기존 개별주→레버리지 ETF의 이전율은 보수적 이전율 0.3%, 적극적 이전율 0.8%를 적용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의 보통주 보유 잔고를 감안하면 전환 규모는 삼성전자에서는 5,988억원~1.6조원, SK하이닉스에서는 2,764억원~7,371억원 수준의 이전이 예상된다(표 5). 두 종목을 합산하면 보수적 이전 시 8,752억원, 적극적 이전 시 2.3조원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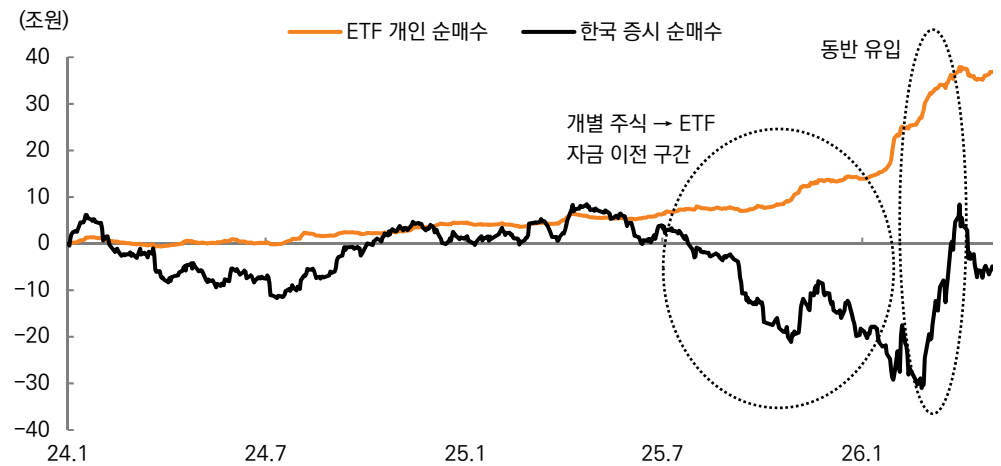
표 5.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개인 투자자 보유 잔고 추정

	전체 주식 수 (만주)	개인 비중 (4Q25,%)	보유 수량 (4Q25,만주)	개인 누적 순매수 (1/2~5/4,만주)	개인 보유 수량 추정 (만주)	개인 보유 비중 추정 (%)	현재 시가총액 (2026.5.4, 억원)	보유 잔고 추정 (억원)
삼성전자	584,628	13.0	76,002	9,851	86,803	14.7	13,592,598	1,996,093
SK하이닉스	71,270	7.7	5,488	879	6,557	8.9	10,312,803	921,346

자료: 개인 비중은 2025년 4분기 각사 IR 자료, 시가총액은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 ETF 신규 상장 시 보통주 투자자의 전환은 국내 ETF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이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은 '개별 종목에서 ETF로의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다. 아래 <그림 3>에서는 2024년 이후 '한국 주식' ETF 및 한국 증시(코스피, 코스닥 합산)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2월까지 개별 주식 → ETF로의 자금 이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2026년 3월 이후 개별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국면에서도 ETF로의 유입은 동반 지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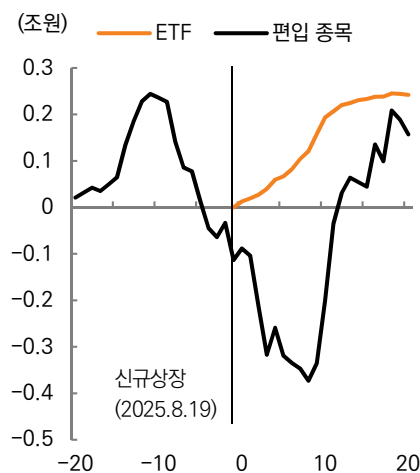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개인투자자의 투자 흐름: 개별 종목에서 ETF로의 전환 진행 중



주: ETF 개인 순매수는 한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주식형 ETF'에 대한 개인 순매수 추이, 한국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합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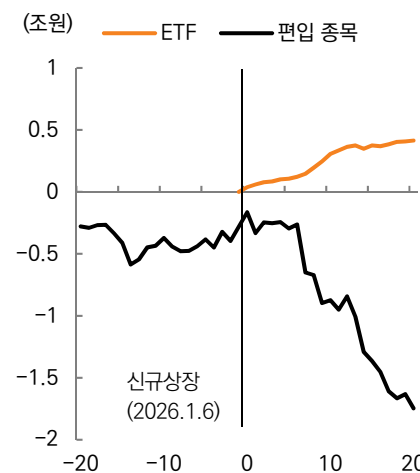
신규 ETF 상장 시 기존 주식에서의 수요 이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이후 신규 상장 후 순유입 +2,000억원 이상(20 거래일 누적) 케이스 3건에서 공통적으로 ETF 편입 종목의 개인 수급 이탈이 관찰됐다(코스닥 액티브는 코스닥 150 기준, 그림 4~6). 예를 들어 2025년 8월 상장된 원자력 테마 ETF는 신규 상장 10거래일 전부터 편입 종목에서 개인 수급 이탈이 시작됐다. ETF 신규 상장 이후 순매도 규모는 -3,731억원으로 편입 종목 시가총액 대비 -0.6% 수준이었다. 2026년 1월 상장된 로봇 테마 ETF는 -1.7조원이 이탈, 시가총액 대비 -4.1%로 원자력 대비 큰 폭의 이전이 발생했다.

그림 4. 개별주→ETF 이전: 전력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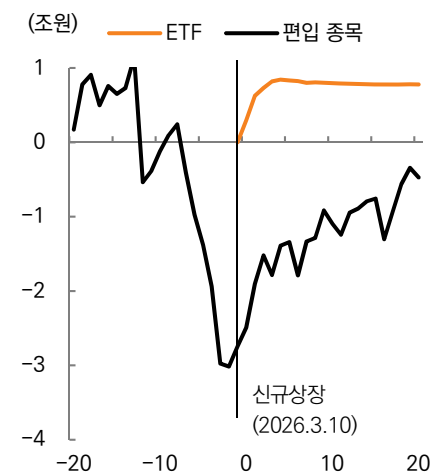
주: ETF는 TIGER 코리아원자력,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개별주→ETF 이전: 로봇 테마



주: ETF는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개별주→ETF 이전: 코스닥 액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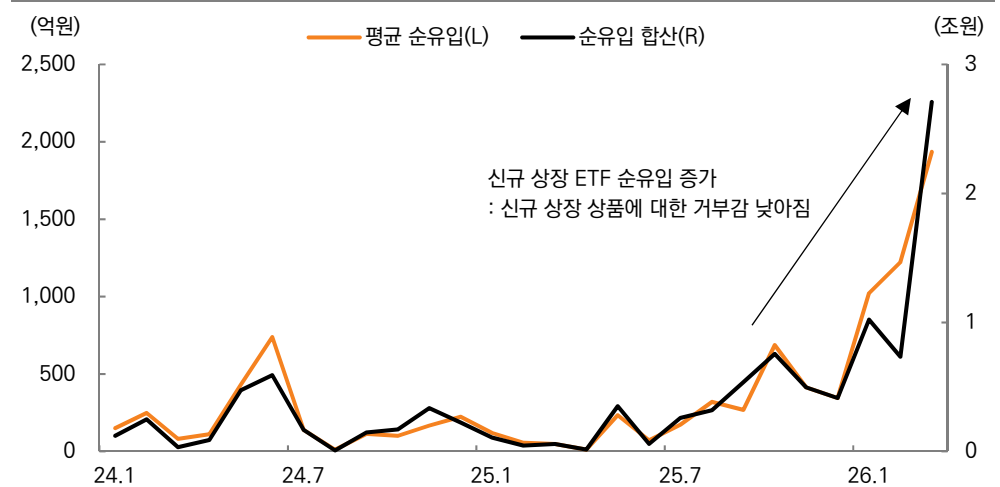


주: ETF는 KoAct 코스닥액티브, 비교군은 코스닥 150 종목,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존 신규 상장 케이스를 고려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통주 투자자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0.3%~-0.8% 수준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 종목은 국민주 성격으로 장기 보유, 배당 수요 비중이 높아 원자력, 로봇 테마 대비 이탈 강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 금액이 각각 3조 3,103억 원, 2조 3,555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과대 추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신규 상장 ETF에 대해 상장 초기부터 강한 자금 유입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상장 ETF(주식형)에 유입된 자금은 월평균 +170억원 수준에 그쳤다(상장 후 20거래일 합산 기준). 그러나 2025년 하반기 월평균 +368억원으로 +117% 증가했고, 2026년 1분기에는 +1,393억원으로 증가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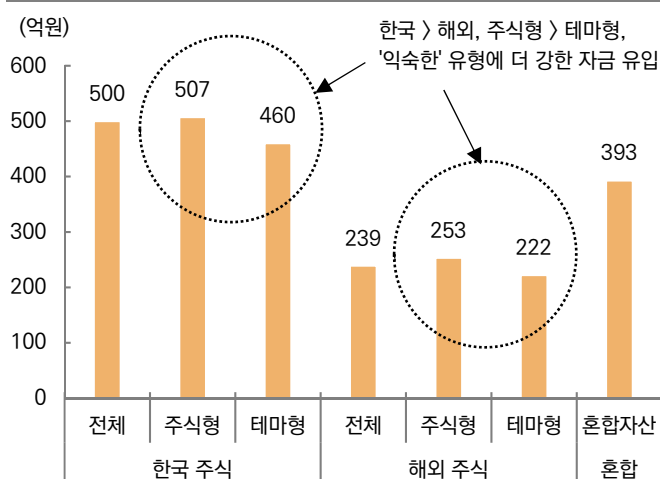
그림 7. 신규 상장 ETF에 대한 순유입 추이



주: 신규 상장 포함 20거래일의 순유입 금액 월별 합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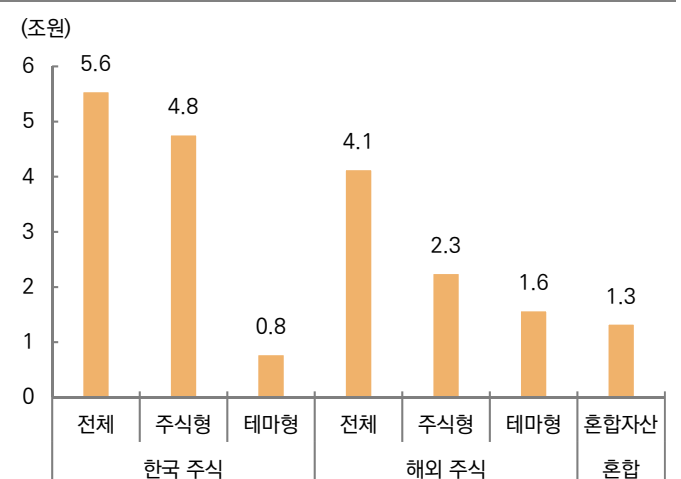
신규 상장 ETF의 자금 유입은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자산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8, 9). 평균 유입 금액 기준으로 한국 주식형은 500억원으로 가장 높고, '주식+채권' 혼합형 393억원, 해외 주식형 239억원 순이다.

그림 8. 신규 상장 ETF 유형별 평균 순유입 금액



주: 신규 상장 포함 20거래일의 순유입 금액 평균, 신규 상장일 기준 월별 합산하여 계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신규 상장 ETF 유형별 전체 순유입 금액



주: 신규 상장 포함 20거래일의 순유입 금액 총액, 신규 상장일 기준 월별 합산하여 계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입 총액 기준으로 한국 주식 내 일반 주식형이 4.8조원으로 여타 유형 대비 압도적이다. 일반 주식형과 테마형 간에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된다. 한국, 해외 주식형 모두 일반 주식형이 테마형 대비 평균 유입 금액이 높았다. 신규 상장 ETF에서도 투자자의 익숙한 정도가 자금 유입 규모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에게 ‘익숙한 상품’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요를 반영해 상장된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A0162Z0), SOL AI반도체TOP2플러스(A0167A0) 등은 신규 상장 후 20거래일 동안 각각 약 +6,793억원, +3,86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 ETF에 대한 수요는 일정 부분 확인된 상태다.

기존 ETF 이전(홍콩 상장 레버리지 ETF): 세금 측면에서 국내 복귀가 유리

기존 반도체 ETF로부터의 이전은 해외(홍콩) 상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P, 국내 상장 반도체 ETF로부터의 이전을 감안했다.

해외 상장 ETP에서의 이전은 세금 측면에서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의 우위를 감안하여 현재 잔고의 30~50% 수준으로 예상한다. 한국인 투자자의 홍콩 상장 잔고는 삼성전자 레버리지(07747, 09747 HK) 7,777만 달러, SK하이닉스 레버리지(07709 HK) 1억 1,510만 달러로 집계된다. 이 중 30~50%가 국내로 이전될 경우 이전 규모는 보수적 이전 시 839억원, 적극적 이전 시 1,398억원 수준이다.

표 6.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P 과세 비교

-	해외 상장	국내 상장
매매 차익 과세(세율)	양도소득세(22%)	배당소득세(15.4%)
과세 대상	매매 차익-필요경비	min(과표 증분, 매매 차익)
기본 공제/손익통산	250만원/O	X/X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의 세금 부담은 제한적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세제 분류상 ‘기타 ETF’로 분류될 것이며, ‘기타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된다. 그러나 과표 증분과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부과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실효 세부담은 해외 상장 ETP 대비 현저히 낮다.

홍콩 상장 ETP의 평가 차익 규모도 이전 유인을 강화한다. 한국인 투자자의 현재 잔고(1억 9,288만 달러)와 상장 이후 국내 투자자의 순매수 결제 금액(5,521만 달러)을 비교하면 매매차익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두 종목의 상장 이후 국내 투자자 거래대금은 6.7억 달러로, 잔고(1.9억 달러) 대비 3.5배 수준이다. 단기 매매 계좌와 장기 보유 계좌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격 차이에도 이전 유인은 모두 존재한다. 단기 매매 계좌는 한국 상장 시 거래 효율성, 세제 우위로 인해 이전 유인이 분명하다. 반면 장기 보유 계좌는 매매 동기가 약해 즉각적 이전 가능성은 낮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국내 시장 복귀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RIA)를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 감면 효과로 인해 이전 유인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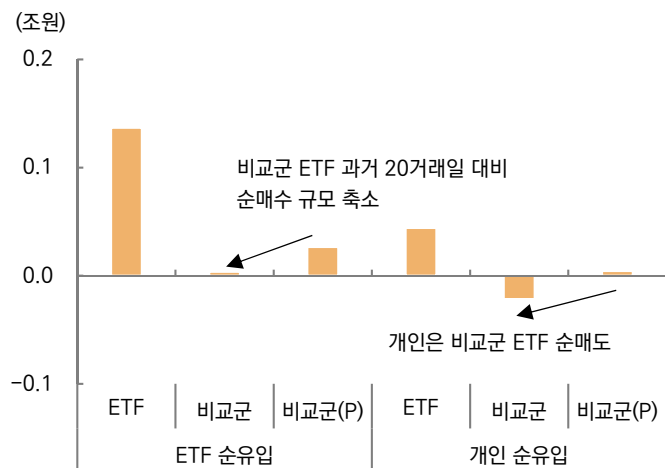
기존 ETF 이전(국내 반도체 ETF): '성숙 테마' 내 신규 ETF 상장 시 자금 이전 패턴

국내 반도체 ETF로부터의 이전 수요는 보수적 이전 시 4,604억 원, 적극적 이전 시 2조 1,585억으로 추정한다. 이는 기존 신규 상장 ETF에서의 매매 패턴을 반영한 것이다. ETF 신규 상장 시 해당 ETF의 성격이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성숙한 테마'인 경우 기존 ETF에서의 자금 이탈 후 유입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아래 <그림 10, 11>은 '성숙한 테마'군에서 ETF가 신규 상장된 경우 기존 ETF에서 자금 유입 위축, 이탈이 발생한 사례를 보여준다. 원자력 ETF의 경우 신규 ETF에 +1,368억 원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비교군(기존 상장 ETF)에는 +37억 원이 유입됐다. 과거 20거래일 +266억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경우 신규 상장 ETF에 +1조 5,229억 원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ETF에서는 -1조 1,267억 원 순유출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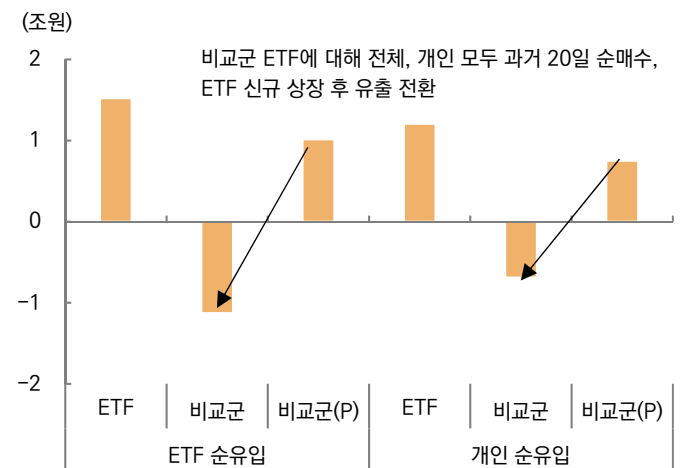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신규 유형이긴 하나 종목 성격상 기존 ETF군(반도체)에서 자금이 이탈하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0. '성숙한 테마'에서의 자금 이전 사례: 원자력 ETF



주: ETF/비교군은 ETF 신규 상장 이후 20거래일, 비교군(P)는 상장 전 과거 20거래일 합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성숙한 테마'에서의 자금 이전 사례: 코스닥 ETF



주: 좌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다음 장 <표 7>은 2024년 이후 신규 상장 ETF 중 신규 상장 이후 20거래일 동안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유입이 발생한 ETF의 수급 동향이다. 1) 성숙 테마에서의 강한 카니발리제이션(자금 이전), 2) 신규, 부상 테마에서 나타나는 시장 확장 패턴이 관찰된다.

1) 이미 다수 ETF가 존재하는 성숙 테마에서는 강한 카니발리제이션 (Cannibalization, 자기잡식)이 발생한다. 코스닥 액티브, 미국 AI 소프트웨어, 코스닥 바이오, 원자력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군에서는 비교군 ETF의 자금 유입이 신규 상장 후 둔화 혹은 유출을 보인다.

2) 신규, 부상 테마군에서는 시장 확장이 나타난다. 전력, 로봇, 개별주(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 카테고리에서는 비교군 ETF로의 자금 유입이 오히려 동반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신규 상장이 시장 전체 파이를 확장시키는 효과로 작용했다.

표 7. 신규 상장 이후 자금 유입 1,000억 원 이상 케이스(단위: 억원, 주황색 음영: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와 유사군)

티커	분류(비교군 종목 수)	신규상장일	신규 상장 ETF 순유입	비교군 ETF 순유입	비교군 ETF 순유입(과거)	신규 상장 ETF 개인 순매수	비교군 ETF 개인 순매수	비교군 ETF 개인 순매수(과거)
A476850	한국 배당성장(3)	2024.2.27	1,268	6	0	84	3	-1
A483280	미국 테크 커버드콜(3)	2024.5.28	2,042	983	290	605	497	62
A486290	나스닥 100 커버드콜(1)	2024.6.25	2,044	-276	-64	1,343	-242	-66
A496080	한국 가치주(10)	2024.11.4	1,148	-42	-14	82	1	-1
A498270	양자 테마*(0)	2024.12.17	1,590	0	0	619	0	0
A0051G0	미국 원자력(2)	2025.5.20	1,094	201	11	280	53	-4
A0091P0	한국 원자력(2)	2025.8.19	1,368	37	266	442	-216	43
A0102A0	미국 AI S/W(2)	2025.9.9	1,060	-448	-22	687	-9	-47
A0117V0	한국 전력(3)	2025.10.21	3,022	2,416	-23	1,578	1,687	234
A0118Z0	미국 AI테크(5)	2025.10.28	1,840	636	492	933	312	375
A0123G0	미국 원자력(3)	2025.11.4	1,413	315	593	1,000	1	207
A0127P0	미국 대형성장/테크 집중 제외(12)	2025.11.11	2,343	2,888	3,003	23	1,900	1,851
A0144L0	미국 성장+커버드콜(3)	2025.12.23	2,425	1,045	635	1,623	857	497
A0148J0	한국 로봇(2)	2026.1.6	5,726	1,373	685	2,451	762	188
A0153K0	주주환원(1)	2026.1.20	1,672	-177	0	622	-1	-13
A0162Z0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0)	2026.2.26	6,793	0	0	629	0	0
A0163Y0 /A0162Y0	코스닥(16)	2026.3.10	15,229	-11,267	10,150	12,071	-6,902	7,504
A0167A0	반도체(21), 개별종목 집중형	2026.3.17	3,860	23,748	22,365	1,732	7,890	7,219
A0167Z0	미국 우주항공(3)	2026.3.17	2,830	227	-89	1,383	103	-61
A0167B0	코스피 200+커버드콜(6)	2026.3.17	1,607	2,050	2,874	1,182	2,175	2,555
A0168K0	한국 바이오(7)	2026.3.17	1,124	-537	-203	752	-345	-285
A0173Y0	광통신/인프라*(0)	2026.3.31	1,710	0	0	878	0	0
A0177N0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1)	2026.4.7	3,033	2,203	1,430	335	49	137
A0177R0	한국 반도체+커버드콜(1)	2026.4.21	1,322	0	0	1,525	5	6

주: 비교군 ETF는 신규 상장한 ETF와 동일/유사한 카테고리의 ETF를 선정, 비교군*은 기존에 유사한 비교군이 없었던 케이스, 코스닥 액티브의 경우 비교군은 코스닥 150 ETF로 산출,

상장일 포함 20거래일 누적 순매수, 과거는 직전 20거래일 순매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유사군은 기존 ETF 상장 3년 이상+한국 주식형 기준 산출

자료: 연합뉴스포맷,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채권혼합 사례(시장 확장)와 달리 반도체 ETF의 직접 대체재 성격이 강해 카니발리제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종목 특성상 성숙 테마에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 ETF 내 집중투자형 ETF 비중이 높고(47%), 레버리지 비중(11.6%)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비중 ETF 및 레버리지 ETF에서 일정 부분 이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카니발리제이션이 발생한 8개 케이스에서 이탈 강도는 -1.8%~-22.8%였다. 고배당(A0153K0), 코스닥 액티브(A0162Y0, A0163Y0)처럼 기존 상품의 대체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서 이탈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기존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강한 수준의 대체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비중 ETF에도 일정 부분 대체적 성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산업 관련 ETF는 32개 종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편입 비중(이하: 합산 비중) 및 전략을 고려하면 레버리지, 고비중(합산 비중 40% 이상), 저비중(합산 비중 40% 미만), 채권 혼합, 커버드콜로 구분할 수 있다. 카테고리별 변동성 및 투자자 특성을 감안할 경우 이탈 발생 시 이탈률(최저~최고) 가정은 레버리지(5~25%), 고비중(3~15%), 저비중(2~10%), 채권 혼합(0~2%), 커버드콜(0~2%) 선이다.

아래 <표 8>에서는 국내 반도체 ETF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비중, 개인 투자자 비중 추정치 및 이탈률을 반영한 이탈 추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한국 상장 반도체 관련 ETF 리스트 및 이탈 가능 금액 추정(고비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비중 40% 초과, 저비중: 40% 미만)

유형	티커	ETF 명	순자산총액 (억원)	*합산 비중(%)	*개인투자자 비중(%)	이탈 가능 비율(%)		이탈 가능 금액(억원)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레버리지	A488080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17,190	30.8	87.4	4.4	21.8	-751	-3,754
	A494310	KODEX 반도체레버리지	18,593	23.0	81.4	4.1	20.4	-757	-3,785
고비중	A0182R0	1Q K반도체TOP2+	583	56.9	61.3	1.8	9.2	-11	-54
	A396500	TIGER 반도체TOP10	104,277	51.4	36.6	1.2	5.6	-1,274	-5,858
	A469150	ACE AI반도체포커스	7,452	50.4	37.8	1.1	5.7	-85	-423
	A091160	KODEX 반도체	52,520	48.7	35.1	1.5	5.7	-762	-2,976
	A091230	TIGER 반도체	12,019	48.6	31.6	0.9	4.7	-114	-571
	A469790	KIWOOM K-테크TOP10	249	47.1	12.0	0.4	1.8	-1	-4
	A474590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2,883	46.9	13.5	0.4	2.0	-12	-59
	A395270	HANARO Fn K-반도체	27,314	46.1	22.0	0.7	3.3	-180	-902
	A0167A0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9,008	44.5	58.6	1.8	8.8	-158	-792
	A395160	KODEX AI반도체	24,950	44.5	28.3	1.0	4.4	-258	-1,104
	A0005G0	ITF K-AI반도체코어테크	1,046	42.2	14.5	0.4	2.2	-5	-23
	A388420	RISE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2,445	36.2	17.5	0.3	1.7	-9	-43
	A486240	DAISHIN343 AI반도체&인프라액티브	938	32.5	2.5	0.1	0.3	0	-2
	A0093A0	RISE AI반도체TOP10	2,473	31.4	27.4	0.5	2.7	-14	-68
저비중	A494220	UNICORN 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	1,704	23.7	36.2	0.7	3.6	-12	-62
	A488210	KIWOOM K-반도체북미공급망	52	20.5	30.1	0.6	3.0	0	-2
	A455850	SOL AI반도체소부장	12,675	0	39.1	0.8	3.9	-99	-495
	A471760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2,303	0	52.6	1.1	5.3	-24	-121
	A476260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306	0	43.9	0.9	4.4	-3	-13
	A475310	SOL 반도체후공정	936	0	53.2	1.1	5.3	-10	-50
	A475300	SOL 반도체전공정	933	0	56.1	1.1	5.6	-10	-52
	A471990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5,564	0	47.3	0.9	4.7	-53	-263
	A482030	KoAct 반도체&2차전자핵심소재액티브	185	0	53.0	1.1	5.3	-2	-10
	A0162Z0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14,937	50.6	8.3	0	0.2	0	-25
	A0183V0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358	50.5	18.2	0	0.4	0	-1
채권 혼합	A0177N0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5,654	50.0	9.7	0	0.2	0	-11
	A0182S0	1Q K반도체TOP2채권혼합50	372	49.2	10.5	0	0.2	0	-1
	A448330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11,831	26.1	8.9	0	0.2	0	-21
커버드콜	A0177R0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2,203	47.9	93.7	0	1.9	0	-41
	A0176P0	FOCUS AI반도체유통리고정커버드콜	113	43.0	10.7	0	0.2	0	0

주: *합산 비중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물 주식 보유 비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ETF별 신규 상장 이후 개인/은행의 순매수 수량을 누적 합산하여 현재 주식수와 비교, 반영 비중은 개인 100%, 은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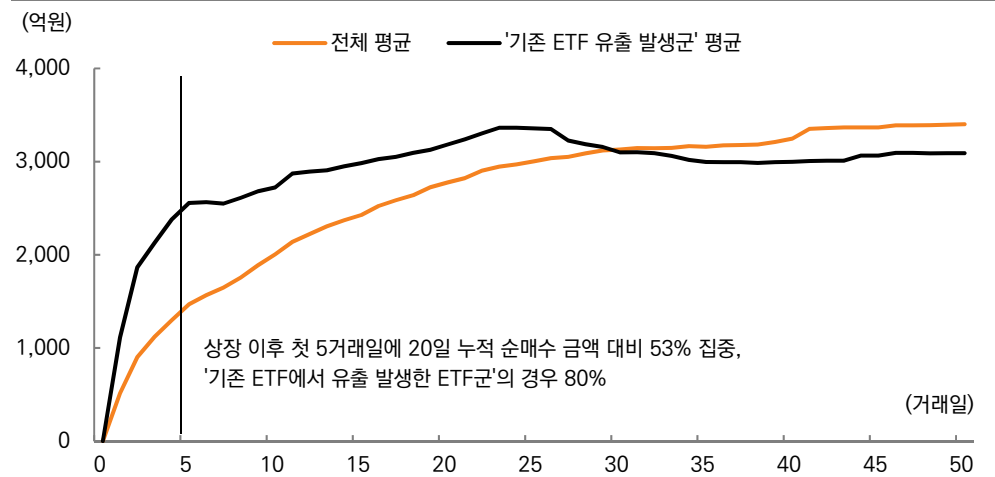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개별 종목 수급 영향 추정

레버리지 ETF 상장은 기초자산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 선물과 보통주에 매수 수요가 발생한다. 반면 기존 보통주와 반도체 ETF에서는 갈아타기 수요로 매도가 발생하면서, 매수, 매도가 동시에 맞물리게 된다.

특히 ETF 신규 상장에 따른 수급 영향이 상장 초기 단계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 다음 장 <그림 12>는 과거 신규 상장 후 1,000억원 이상 순유입을 기록한 케이스의 상장 이후 평균 누적 순매수 금액 차이로, 최초 5거래일 순유입 규모가 20일 누적 순유입의 53%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속할 가능성이 높은 '기존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한 ETF군'의 경우 80%가 첫 5거래일에 집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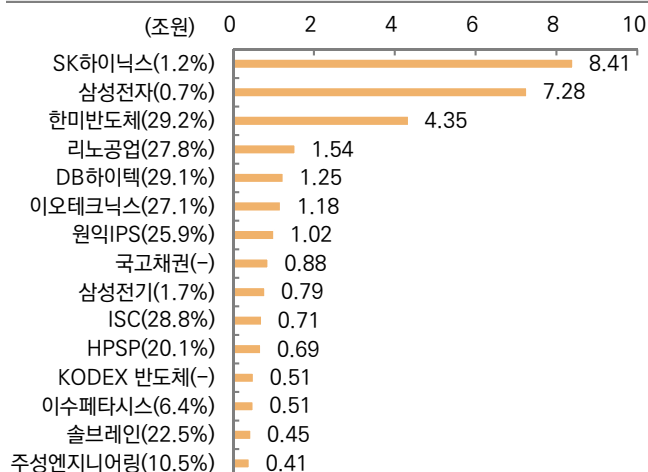
그림 12. 신규 상장 이후 누적 순매수 평균 추이(신규 상장 후 1,000억 원 이상 순유입 케이스 대상)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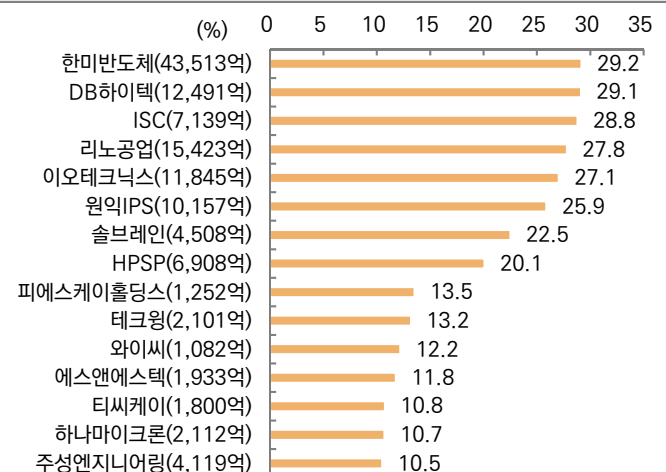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 보통주/기존 반도체 ETF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ETF를 통한 수급이 이를 완충한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기존 반도체 ETF에 편입된 개별 종목의 경우, 기존 반도체 ETF 자금 유출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림 13. 반도체 ETF 보유 금액 상위 (괄호 안: 보유 비중)



주: 보유 비중은 보유 금액/유동 시가총액 비중, 2026.4.29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반도체 ETF 보유 비중 상위 (괄호 안: 보유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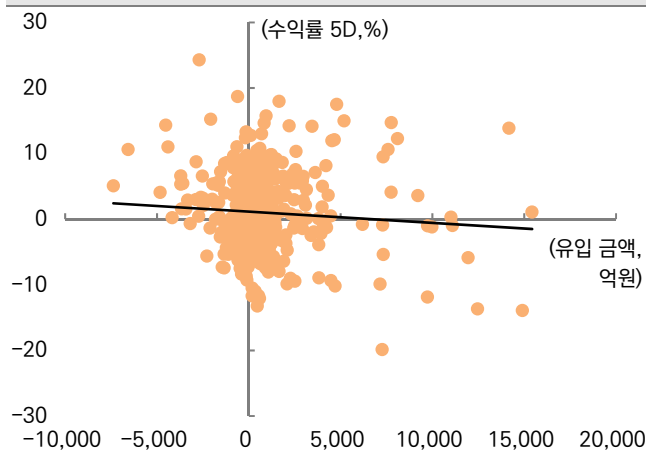
주: 좌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효과는 우호적이거나, 영향은 제한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통주에 대한 수급 효과는 우호적이거나 시가총액 대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요인은 보통주 투자자 이탈, 기존 반도체 ETF 이탈, 홍콩 ETP 이전 세 가지이다. 보통주 보유자의 신규 ETF 이전(소극: 8,752억 원, 적극: 2.3조 원), 기존 반도체 ETF 이탈에 따른 본주 매도(소극: 1,934억 원, 적극: 9,066억 원), 홍콩 ETP 환매에 따른 본주 매도(소극: 839억 원, 적극: 1,398억 원)를 합산하면 적극적 시나리오 기준 약 3.4조원 수준이다. 유입은 신규 ETF의 현물 매수로, 총 수요 추정은 소극적 유입 기준 1.7조원, 적극적 유입 기준 5.3조 원 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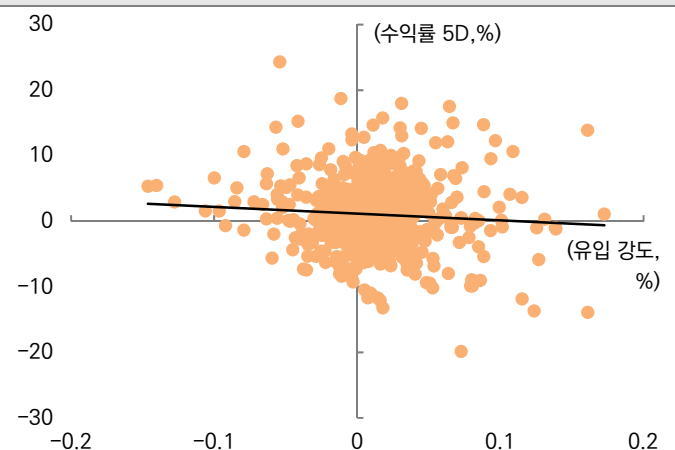
유입과 유출을 종합한 보통주 합산 순영향은 소극적 +5,209억 원, 적극적 +1조 8,788억 원 수준이다. 합산 시가총액 대비 +0.02~0.08% 수준으로 방향성은 우호적이거나 절대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두 종목의 시가총액 및 기타 주체(외국인 등)의 활동, 사전 설정될 금액을 감안하면 신규 수요 발생 시에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15~18>은 2024년 1월 이후 각 일자별로 누적 5일 간의 ETF를 통한 자금 유출입 규모/강도와 수익률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2개 종목에 대한 ETF의 수급 영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유출입 금액/수익률 분포: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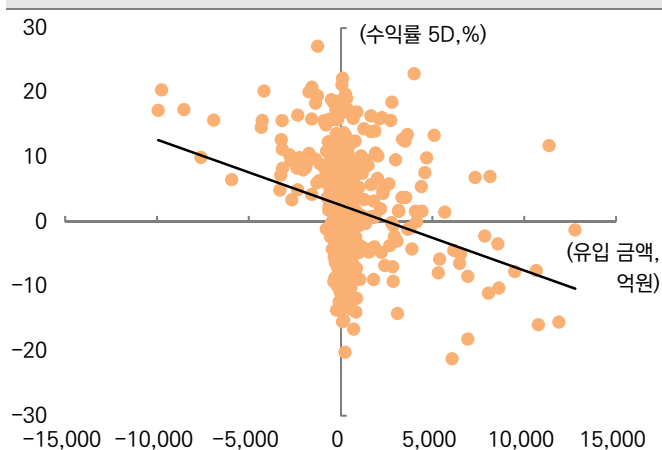
주: 유입 금액은 각 일자별 누적 5거래일의 ETF를 통한 유입 금액,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유출입 강도/수익률 분포: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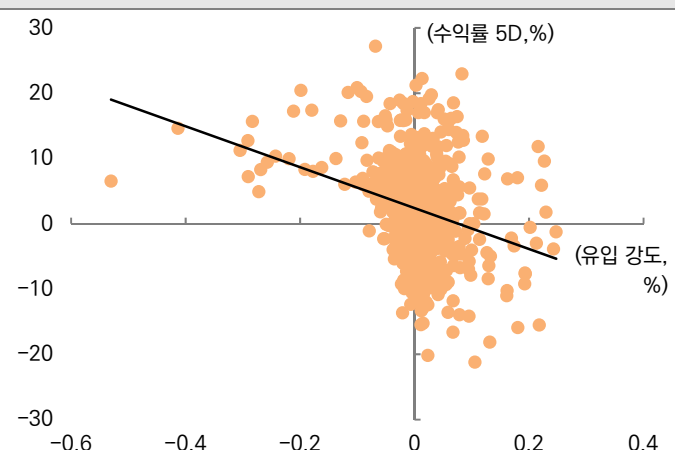
주: 유입 강도는 유동 시가총액 대비 유입 금액,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유출입 금액/수익률 분포: SK하이닉스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유출입 강도/수익률 분포: SK하이닉스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의 경우 개별종목 선물의 승수(10배)를 감안할 경우, 2개 종목 선물 매수 포지션에 2조 원 이상의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기존 상장된 반도체 ETF에서 보유 중인 개별 종목 선물 규모는 1조 7천억 원 규모로, 그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 종목 선물 보유 잔고는 각각 3,469억 원, 3,296억 원 수준이다. 레버리지 ETF에서의 적극적 이전을 가정하더라도 유출 가능 금액은 1,400억 원 가량이다. 평균 수준의 자금 유입(ETF 기준 3조 4천억 원) 시 2개 종목 선물 유입 추정 금액은 약 2.4조~3.7조 원 수준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반도체 산업 종목: 수급 이탈 시 변동성 확대 전망

기존 반도체 ETF에서의 자금 유출 추정은 보수적 이전 시 4,604억 원에서 적극적 이전 시 2조 1,585억 원으로 가정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반도체 종목에는 자금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탈 규모는 소극적 이전 시 2,555억 원, 적극적 이전 시 1조 2,023억 원에 해당된다. 반도체 ETF의 보유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에는 수급 측면에서 영향이 크다. <표 9>는 적극적 이전 가정 시 개별 종목에서 유출될 수 있는 자금 규모로, 해당 종목들의 경우 ETF에 의한 자금 영향도 커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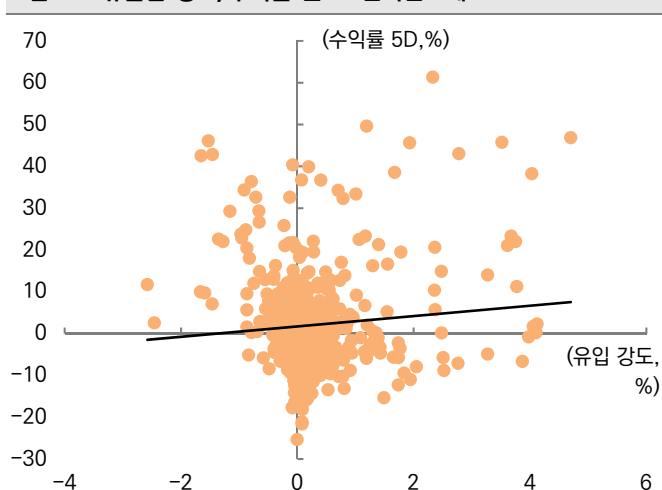
표 9. 기존 반도체 ETF 자금 유출 시 유출 강도 상위 예상 종목

티커	종목명	시가총액 (억원)	평균 거래대금 (억원)	이전 예상 금액 평균치 적용			이전 예상 최대치 적용		
				예상 금액 (억원)	유동 시총 대비 (%)	거래대금 대비 (%)	예상 금액 (억원)	유동 시총 대비 (%)	거래대금 대비 (%)
A000990	DB하이텍	66,388	713	-667	-1.6	-93.5	-1,101	-2.6	-154.4
A042700	한미반도체	340,741	2,959	-1,928	-1.3	-65.2	-3,181	-2.1	-107.5
A095340	ISC	51,721	1,048	-306	-1.2	-29.2	-505	-2.0	-48.2
A058470	리노공업	85,433	1,030	-634	-1.1	-61.5	-1,044	-1.9	-101.4
A039030	이오테크닉스	63,569	409	-498	-1.1	-121.7	-820	-1.9	-200.6
A357780	솔브레인	37,259	185	-222	-1.1	-119.7	-367	-1.8	-198.2
A240810	원익IPS	59,293	613	-418	-1.1	-68.1	-688	-1.8	-112.2
A403870	HPSP	43,948	1,423	-296	-0.9	-20.8	-488	-1.4	-34.3
A089030	테크윙	22,010	796	-87	-0.5	-10.9	-143	-0.9	-18.0
A031980	피에스케이홀딩스	28,117	252	-49	-0.5	-19.3	-80	-0.9	-31.9

주: 평균 거래대금은 최근 20일 거래대금 평균, 유동 시가총액 대비 유출 강도 순 정렬.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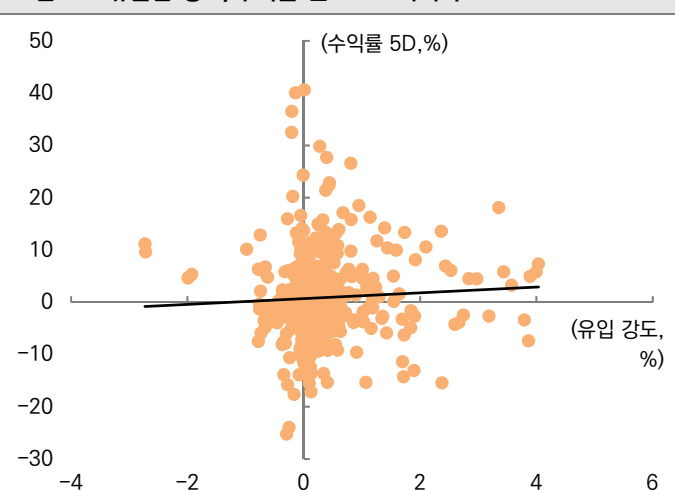
그림 19. 유출입 강도/수익률 분포: 한미반도체



주: 유입 강도는 유동 시가총액 대비 유입 금액(각 일자별 누적 5거래일 ETF 유입 금액),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유출입 강도/수익률 분포: DB하이텍



주: 좌동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